

## 추억의 등굣길, “좀 태워 주세요”

양성호(44회 졸업)

어느덧 산동초등학교를 졸업한지가 벌써 반세기를 훌쩍 넘겼고 몇 년이 더 흘러가고 있다. 44회 졸업생이 반세기가 넘었으니 개교를 따지자면 우리 선배님들 또한 얼마나 더 많은 추억을 가지고 계실까? 한편으로는 궁금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선배님들께는 주제 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겪었던 학교 다닐 때의 추억을 한번 그려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 추억이 너무 생생하게 머릿속의 영상으로 남아있고 친구들과 모임 때나 옛이야기로 막걸리 안주삼아 했던 이야기지만 더 이상 잊혀 지기 전에 글로 남겨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로부터 있었는데 마침 ‘개교 백주년 기념’ 출간물을 발간하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남기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우리 산동면을 관통하는 도로가 명색이 국도 19호선이다. 국도 19선은 “남해~홍천선”이란 이름으로 경남 남해군 해안(미조면)을 기점으로 섬진강 연안 지역(하동, 구례)을 거쳐 한반도의 중앙 내륙 지역(남원, 장수, 무주, 영동, 옥천, 보은, 청주, 괴산)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한 다음 충청북도 충주를 거쳐 강원도 원주, 횡성, 홍천군까지 이어지는 도로이다. 총길이는 천리가 넘는 454km로서 경남, 전남, 전북, 충북, 강원도 남한 5개의 도를 연결하는 내륙의 혈맥역할을 하는 도로이다. 당시에는 국도가 뭔지도 몰랐지만 우리는 그냥 이 도로를 “신작로”로 불렀다.

당시 이 신작로의 형태는 비포장인 것은 물론이지만 도로가 큰비가 한번 씩 내리고 나면 군데군데 움푹움푹 패이게 마련이었다.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을 보수할 목적으로 동네별로 부역을 붙여서 신작로 양옆으로 폭 60cm, 높이 40cm, 길이 5m 정도의 돌, 자갈, 모래 등의 무더기를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쌓아 놓고 있었다. 이렇게 쌓아 놓은 자갈무더기는 도로가 패이게 되면 주기적으로 각 동네 어른들이 도로부역을 나와서 이 자갈무더기로 패인 곳을 메우면서 도로를 평평하게 만들어 놓아 차량이 다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신작로를 우리는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 지금은 학생들을 스쿨버스가 태워서 등하교를 시키고 있지만 당시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울퉁불퉁한 자갈 신작로를 탄력이라고 없는 딱딱한 검정고무신을 신고 걸었고, 가방도 없었고 책보에다가 책 몇 권을 넣고 책 보따리를 어깨에 대각선으로 묶어서 아침부터 걸어 다녔던 것이다. 책 보따리를 대각선으로 묶지 않고 손에 들거나 허리에 수평으로 묶으면 오랫동안 걸어가면서 책 보따리가 풀어지게 마련이고 가다가 풀어진 보따리를 다시 묶어서 걷다 보면 같이 가던 일행하고 뒤처지기 마련이어서 어렸지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오래 걸으려면 ‘책보를 대각선으로 묶어야 편히 걷는 다’는 지혜를 터득했던 것이다.

당시 각 동네에서 학교에 오는 길은 크게 4개의 코스로 나뉜다.

첫 번째 코스는 식련에서 출발하여 배실고개를 넘어 태평리 앞을 지나오는 길이다. 이 코스는 큰 신작로를 주로 걸어오는 대신에 가장 멀어서 하루 왕복 20리를 걸어 다녀야 하는 코스이다. 한마디로 발바닥에 불이 나는 길이다.

두 번째 코스는 웃점(상신)에서부터 대상마을에서 요동아이들과 합류하여 한재를 넘어 학교 뒤뜰의 방죽 옆의 논두렁길을 따라 오는 길인데 이 길은 한적한 대신 길이 좁고 숨을 헐떡거리며 큰 재를 하나 넘어야 하고 장마철에는 다리 없는 조그만 물길을 걸어 다녀야 해서 이미 학교에 오면 항상 고무신에 물이 차있게 되어 있는 대상친구들의 등긋길이다.

세 번째 코스는 독골에서 달뫼로 나와 달뫼에서부터 신작로를 따라 걸어 대촌앞을 거쳐 학교에 오는 길인데 이 길은 비교적 평탄한 편이다.

네 번째는 불선재에서 갱변(평선)으로 나와 등구리에서 모여 등구리 앞 요천의 어른들이 임시로 만들어 놓은 나무다리를 건너서 대촌 앞 신작로 거쳐 학교로 오는 길인데 이 길은 멀지는 않지만 비만 오면 나무흙다리(표준어로 ‘섞다리’)가 큰물에 떠내려가 버리기 일쑤였고 나무다리가 떠내려 가버리면 학교에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코스도 참 애로사항이 많았던 길이다.

이 네 개의 코스 중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코스는 첫 번째 코스이다.

나는 다행히 학교 옆에서 살고 있어서 교실까지 가는데 5분이면 되니까 이런 고생은 별로 안했다. 그런데 마침 외갓집이 식련이어서 가끔 외할

머니나 외삼촌 집에 놀러 가게 되면 아침에 그 식련 동네 친구들과 같이 걸어서 학교를 오가곤 했는데 그 당시 등교 풍경은 이렇다. 일단 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서 약속된 시간까지 동네 신작로 앞으로 다 모이고, 모이고 나면 고학년 인솔반장이 나서서 2줄로 나란히 줄을 세워서 인원파악을 하고 출발 신호를 하면 신작로 옆으로 걸어서 학교까지 걸어간다. 말이 십리이지 십리는 성인이 보통걸음으로 쉬지 않고 한 시간 동안 걸어야 하는 거리이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고무신에다 도로는 울퉁불퉁하지 길 양옆이 그나마 평탄해서 좀 걸을 만 한 곳이었지만 그 평탄한 곳에다 나란히 일렬로 그놈의 자갈무더기를 쌓아 놓았으니 평탄한 옆길로 갈 수도 없다. 하는 수 없이 자갈무더기를 피해 도로 안쪽의 자갈길을 걷게 되면 발바닥이 아프면서 두 배는 힘들어 지고 그놈의 자갈무더기 장애물이 원망스러웠다. 십리를 어린아이 보폭으로 계산하면 약 한 시간 반은 걸어야 하는 거리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의 초등학생들보고 매일 십리를 걸어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하면 아이들도 그런 놈의 학교 안 간다고 생떼를 썼을 것이고 학생들보다도 더 극성스런 학부모들이 나서서 ‘스쿨버스 배정해서 내 아이 고생시키면 안된다’고, 요구가 관철이 안 되면 교육감 때려 죽여야 한다고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을 일이다. 돌이켜보면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꼭 좋은 방향으로만 변했는지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행히 이 신작로는 국도 19호선 주요 혈맥이어서 그랬는지도 몰라도 차량운행이 빈번히 있었다. 그 때 흔하게 볼렸던 ‘제무시 도라꾸’[미국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가 제작한 트럭의 상표 (“GMC”)를 일본식 발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불렀다]도 자주 뿌연 흙먼지를 품으면서 지나다녔고 남원을 오가는 버스도 한 시간에 한 대 정도가 왕복으로 다녔다.

그런데 우연히도 남원에서 변암으로 올라가는 버스가 매일 우리가 식련에서 출발해서 배실 넘어 가는 고개 중간까지 가기 전에 꼭 지나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버스가 이 시간 마다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하고 무심코 생각하고 학교를 다니다가 어린나이에 날마다 아침부터 학교까지 십리를 걸어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던지 어느 날 고학년 인솔반장이 제안을 한다. ‘우리 모두 합창으로 버스를 좀 태워달라

고 사정을 해보자'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준다. 일제히 두 줄이 아니고 여러 줄로 밀착해서 모인 다음 한번 절하면서 “좀 태워 주세요”하고 외치고 다시 절하면서 “좀 태워 주세요”외치고 태워 줄 때까지 하자면서~ 얼마 후 마침 식련 동네 앞에서 모여서 출발하려고 하는 찰나에 남원에서 올라오는 버스가 오리소 모퉁이를 돌아 식련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약 150m전방 쯤 버스가 시야에 나타나자 인솔반장의 신호에 따라 일제히 절을 하면서 “좀 태워 주세요” “좀 태워 주세요” “좀 태워 주세요”~~~

버스가 다다를 때까지 최대한 애타게 애원하면서 외쳤다. 내 기억으로는 한 열댓 번 이상 약30여명이 함께 외쳤던 것 같다. 그러나 버스는 태워주지 않고 냉정하게 지나가 버린다. 얼마나 허망하던지~ 차라리 태워달라고 절하고 외치면서 사정하는 사이에 그냥 걸어갔더라면 벌써 한참을 갔을 텐데 ‘에이 씨~’ ‘괜히 절만 했네’ ‘아침부터 힘만 뺏겼네’ 곳곳에서 볼멘소리들만 터져 나왔다. 하는 수 없이 터덕터덕 걸어서 학교로 오는 그날은 유난히 더 힘들기만 했다.

같은 걸음이었는데도 몇 배 더 힘들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그날로부터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올라오는 버스를 향해 “머리 숙여 절을 하면서 ‘좀 태워 주세요’를 외쳤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버스는 쉬어서 태워주지 않고 뽕뽕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절까지 하면서 좀 태워달라는 말이 하도 불쌍하고 애처로웠는지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버스가 섰다. 당시 버스에는 기사는 운전만 하고 버스요금을 받는 차장이 별도로 있었는데 버스 문이 열리고 차장이 내려오더니 우리보고 버스에 타라고 손짓을 한다, “오늘은 기사님이 특별히 너희들을 태워 주라고 하셨다” 고~

그 순간이 얼마나 고맙고 기뻐는지 마치 구세주를 만난기분이었다. 혹시나 늦게 타면 못탈 것 같았는지 우르르 몰려들어 버스에 올라탔다. 한 시간 반이나 걸어야 오는 길을 버스는 터덜거리고 오기는 했지만 불과 15분 정도 달린 후에 면사무소 앞 정류장에 내려줬다. 내리고 나서는 우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다시 전부 모여서 버스 출발 전에 버스에다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하고 일제히 외치면서 몇 번 절을 한 다음에야 학교에 들어갔다. 그런 날은 참 기분 좋은 날이었다.

그러나 매번 이런 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잘해야 한 달에 한번정도 마음씨 좋은 기사양반을 만났을 때나 맞볼 수 있는 일이었다. 지금 쯤 그 마음씨 좋은 그 양반은 어디에 계실까? 아마 하늘나라에 가 계실지도 모르지만 참으로 고맙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지금도 그 때 그토록 애절하게 외쳐댔던 이 말이 아직도 내 귀에 생생하다

“좀 태워 주세요” “좀 태워 주세요” “좀 태워 주세요”~~~